“스트레스 줄이는 에센스 나온다”

표준연구원-태평양 공동개발 … Aromachology 효과 D/B 구축

스트레스를 줄이는 에센스가 개발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간정보연구그룹은 태평양과 공동으로 아로마콜로지(Aromachology) 효과에 바탕을 둔 스트레스 감소 에센스를 개발했다고 6월25일 밝혔다.

아로마콜로지는 향기(Aroma)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심리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동연구팀은 아로마 자극에 따른 아로마콜로지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 향기가 인체에 영향에 대한 정보를 담은 후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복합향을 규명해 에센스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연구팀은 특히 20-30대 성인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아로마콜로지 효과를 실험한 결과 심전도(ECG) 생체신호의 심박동 주기 간격과 뇌파인 알파파 변동리듬의 쾌적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인체영향평가 실험광경

스트레스 경감용 에센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민병찬 박사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단일향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뤄졌지만 복합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으며, 후각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개발한 스트레스감소 에센스를 비롯해 불면증을 없애는 향장품 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27>